

# “한전공대 잘해봅시다”

김영록 전남지사-김종갑 한전 사장 첫 비공식 만찬 회동  
내달 예상 실시협약 체결 앞둔 시점 관심…세부 사항 논의

한전공대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확정된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종갑 한전사장이 첫 비공식 만찬 회동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만남은 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다음달로 예상되는 실시협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지사와 김사장은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 30여분간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김지사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만남은 전남도에서 정부부지사와 실무국장·한전측에서는 부서장과 실무단장이 각각 배석했다.

이날 양측은 2022년 3월 한전공대

개교 목표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자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은 구체적 대화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측은 전남도·나주시·한전 간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 중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와 한전은 인프라 조성, 부지 인허가, 재정지원 규모 등 실시협약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지만, 부지제공의 방법과 시기, 재정지원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지사는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한전이 요구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적극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 층에게도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만남에서 김지사가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로 차질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전이 협조를 요청하면 중앙정부 등 어디든 가서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방의회 동의에 이어, 실시협약 체결로 이어지는데 물꼬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환 기자

## 광주시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취업지원·사후관리 통합서비스

광주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희망 잡 클래스(Job Class)’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광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비전 컨설팅, 가족코칭 등 취업의욕 고취 프로그램부터 직업훈련·교육 연계지원, 자격증 취득,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격증 등 취업조건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광주의 자치구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을 일선한다.

광주시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갖고 참여자 유통조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자치구와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관련 기관 등이 연계한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수행기관을 4월5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다. 이어 4월 중 광주공시사 위원회를 개최해 3~5곳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 장병완 의원, 제2순환로

### 진월IC 개설 15억 확보

광주 남구는 건축법에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 일정 공간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도록 허용해 따라 이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혜택을 받는 대신 땅의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 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접객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밖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다음달 5일까지 이마트 봉신점을 비롯해 광주 기독병원, 동아병원, 교회 등 관내 11개소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 북구, 지역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 만든다

광주 북구가 청년의 의견을 구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북구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나섰다.

북구는 “27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구조에 반영해 실현 가능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제1기 북구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북구는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지난 2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위원을 공개모집했으며 청년활동가, 청업가, 직장인, 대학생 등 총 28명을 선정했다.

이날 위촉장 수여, 2019년 북구 청년정책종합계획 안내 청년네트워크 운영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대식 후 회의에서는 청년네트워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회의 개최주기, 일원선출방식, 분과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련된 전반을 자체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강

26일 광주 광산구가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아호센터에서 2019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총 4차례 강연을 실시한다.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강좌로 운영된 이번 예산학교는 입문·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입문과정은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구 재정 현황 등 기본 이해 ▲주민제안서 작성방법 등이, 심화과정은 △자치분권 특강 △위원회들이 경험한 참여예산 이야기 ‘이그나이트’ △참여워크숍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광산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사례 소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 코레일 광주본부, 공생안전 협동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 13개 수급업체 대표자 참여…1분기 발굴 요인 토론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이선관)는 SJ파워 등 13개 수급업체 대표자

와 함께 철도산업 공생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3월 협동안전보건협의체

체를 26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부터 14일 가지 3일간 수급업체와 협동으로 시행한 1분기 현장 합동점검이 발굴된 불안전요인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또한 각 수급업체 대표자들에게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근로자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착용하여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선관 본부장은 “앞으로도 광주본부는 수급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유지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평화당 광주시당 5·18 역사왜곡 규탄 홍보차량 운행 ‘눈길’

### 120인치 LED 스크린 탑재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이 5·18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홍보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지난 26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홍보차량을 광주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1.5t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는

120인치 LED 스크린을 탑재해 최근 공개된 5·18 미공개 영상과 5·18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상영하고 있다.

또 전면과 측면에는 램프를 통해 ‘5·18 정신 모독하는 자유한국당 해신하라’, ‘5·18 모독 망언 의원 제명’ 등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도 새겨넣었다.

민주평화당 중앙당 차원에서 홍보차량 제작을 기획했으며 5·18



민주평화당 제39주년 기념일인 오는 5월18일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 광주시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취업지원·사후관리 통합서비스

## 동구, 치매검진 협약병원 확대

광주 동구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검진 협약병원을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동구 치매신단점치는 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 동 순회검진 등을 통해 1차 치매신발검사 후 인지저하지로 판정되면 2차 진단검사인 신경인지검사를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치매원인판정이 필요한 경우 치매검진 협약병원에서 3차 감별검사인 뇌영상촬영(MRI),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서구,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나선다

광주 서구가 4월 1일부터 2주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에 맞춰 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서구는 금연 단속요원, 서부경찰서, 한국외식업 서구지부 등 4개반 1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PC방, 음식점, 공공청사,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 10미터 이내 구역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남구, 주민들 휴식공간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광주 남구는 건축법에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 일정 공간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도록 허용해 따라 이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혜택을 받는 대신 땅의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 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접객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밖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다음달 5일까지 이마트 봉신점을 비롯해 광주 기독병원, 동아병원, 교회 등 관내 11개소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 북구, 지역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 만든다

광주 북구가 청년의 의견을 구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북구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나섰다.

북구는 “27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구조에 반영해 실현 가능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제1기 북구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북구는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지난 2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위원을 공개모집했으며 청년활동가, 청업가, 직장인, 대학생 등 총 28명을 선정했다.

이날 위촉장 수여, 2019년 북구 청년정책종합계획 안내 청년네트워크 운영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대식 후 회의에서는 청년네트워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회의 개최주기, 일원선출방식, 분과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련된 전반을 자체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강

26일 광주 광산구가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아호센터에서 2019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총 4차례 강연을 실시한다.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강좌로 운영된 이번 예산학교는 입문·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입문과정은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구 재정 현황 등 기본 이해 ▲주민제안서 작성방법 등이, 심화과정은 △자치분권 특강 △위원회들이 경험한 참여예산 이야기 ‘이그나이트’ △참여워크숍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광산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사례 소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onam.com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